

창세기 32장 24-32절

패배의 흔적 1 힘의 한계 2 저는 야곱입니다

P: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의 행보, 아버지의 순종의 삶에 대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성숙한 신앙의 야곱이었지만 베엘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도망쳐 낯설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라반에게서 악착같이 버티며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고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도망쳤습니다. 이제 야곱이 갈 곳은 형에서가 있는 고향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용서가 아닌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을 피해 도망했지만 에서에게 죽게 된 이 상황, 야곱이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의 순간에 야곱은 모든 가족과 가족들을 압복강을 건너게 한 후 그 밤에 혼자 흐르는 강 앞에 홀로 서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는 도중에 난데없이 한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9:10에 보면 여러 명이 옮겨야 하는 우물에 있는 돌을 라헬을 위하여 혼자서 옮깁니다. 또한 삼촌 라반을 위하여 20년 동안 일하며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노동을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기서 ‘칩다’는 것을 NIV성경에는 ‘터치’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터치한 그 부분은 골반과 대퇴골이 있는 쪽으로 인체의 뼈중에 가장 크고 단단하며 힘의 원천인 곳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겨뤄볼만하다 생각했던 상대에게 한 번의 터치로 자신의 강력한 힘의 원천인 곳이 부러져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꺾이자 그때부터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야곱의 오래된 자아가,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신의 자아 위에 세워진 삶의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나?’ 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너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아느냐?’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저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자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을 것입니다. 레슬링 선수처럼, 유도 선수처럼 자신의 힘으로 씨름하며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 그러나 이제 압복강에서 홀로 씨름하다가 결국 드러난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아.** 견고했던 그의 껍질은 벗겨져버리고 흰 속살만 드러났을 때 그 분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 이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어 있구나!’ 의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면 그 보존된 생명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는 이제 절뚝 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인생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5-38절

전달의 사명 1 꿈 해석 2 대비책

P: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해야한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자 요셉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므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진술은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는 단지 자신이 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요셉을 불렀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해석 해주시고, 그 해석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당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는 꾸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알립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삼키는 바로의 꿈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요셉은 그 땅에 일곱 해 동안 풍년이 든 후에 일곱 해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꿈을 두 번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임을 알려 줍니다.

일곱 해 동안의 극심한 흉년과 기근은 애굽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심으로 애굽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알리므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장차 온 땅에 닥칠 7년의 극심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나라에 감독관을 두어 7년의 풍년 기간에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들여 창고에 보관해서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 임할 위기를 알리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게 하심으로 애굽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이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바로의 꿈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에 대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셉처럼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되심과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회복된 상처는 자산이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 2 생명을 구하는 역사

P: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뒤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요셉의 손에 죽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일이 요셉의 형들과 그 자손을 세상에 살아 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섯 해나 남은 흉년을 대비해 아버지 야곱과 남은 식솔들을 모두 애굽으로 옮겨 오도록 제안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놀라운 성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사람들을 돕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성취 가운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눔으로 이웃이 생명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12절

제가 무엇이라고 1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2 상처로 가득한 모세

P: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자.

하나님께서 장인의 양 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의 사자의 모습으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상태로 임재하셨습니다. 떨감없이 스스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떨기나무는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살아 온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사자의 형태로 모세와 만나주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신적 거룩함을 감소시키지 않으시면서 죄인들과 사귀실 수 있고 진노와 자비를 동시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땅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하여 모세에게 신을 벗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 것은 간단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이라는 간단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에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는 것을 요구하시며 순종을 가르치심을 통해 구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마련하신 방도의 단순성과 효력에 기뻐하며 그분의 요구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알게 해줍니다. 족장들에게 미지의 것, 믿을 수 없는 것, 가기 힘든 길을 요구하시고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암시하는 소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확실한 의지와 선언에도 강력하게 다섯 차례나 거부합니다. 모세의 거부는 그의 심리적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세월은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완전히 빼앗아갔고 그 빈 자리에 무능력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첫번째 반응이었던 '제가 무엇이라고' 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아는 자의 깊은 탄식이 섞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바라보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로 대답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하시면서 모세를 강력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축원합니다.